라오스 아이들, 동명불원에 "코업 차이"

〈ຂອບໃຈ, 감사합니다〉

1월 7일 라오스 팍폽초교 방문
노트, 연필 등 학용품 전달해
300만원 상당, 후원물품 기증
동명불원 신도 십시일반 모금
풍성한 쌀나눔으로 후원 이어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동명불원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재)부산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 이하 동명불원)이 새해를 맞아 라오스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동명불원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동명불원 신도들은 라오스 팍폽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성지순례를 준비하던 가운데 라오스의 열악한 학업 환경을 알고 원장 원순 스님이 발의해 마련됐다.

동명불원 신도들은 먼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후원이 필요한 학교를 추천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라오스 어린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학용품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학용품을 선호한다는 정보에 따라 신도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신도들은 직접 어린이를 위한 학용품을 구매하고 전달했다. 현장에서 학용품을 전달하자 라오스 어린이들은 손을 모으고 "코업 차이(ຂອບໃຈ,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한 학용품은 학생당 스케치북, 노트, 연필, 색연필, 연필깎기, 지우개, 색종이묶음 등이다. 동명불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 교사에게도 연필, 고급볼펜 등 다양한 학용품을 전달했다. 각 교실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미노 게임 세트와 대형 연필깎기도 전달해 총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이석근 사무국장, 이원옥 이상수 신도회 부회장 등 신도 13명이 참여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이곳은 우리나라 60~70년대보다 열악한 환경인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행사가 가장 뜻깊은 행사인 것 같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님께도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자비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동명불원은 이번 자비나눔을 계기로, 해외성지순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동명불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남구청에서 자비의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명불원은 백미 20kg 500포를 전달했다. 자비의쌀은 연말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됐다.

동명불원은 지역 관내 소외 이웃을 위한 쌀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20kg, 20포를 부산역과 부산시청, 부산진역 등 무료급식소에 후원하고 있다. 독거어르신 및 소외 이웃을 위한 연말 떡국 나눔도 진행하고 있다.

"비구니 승가 밝힐 등대 되겠습니다"

봉녕사, 1월 10일 승가대학 ·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식

승가대 5명 비구니 졸업생 배출
대학원 전문 · 연구과정 5명 졸업
성효 스님, 제2교구 장학금 전달

세주당 묘엄 명사의 유지를 이어 비구니 교육에 힘쓰고 있는 계율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10일 봉녕사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3회 전문과정·제10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번 봉녕사승가대학 졸업생은 연지 스님을 비롯해 5명이다.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다일 스님 등 전문과정 4명과 연구과정의 수연 스님 등 총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스님들, 봉녕사승가대학 외래교수인 선재사찰음식연구소 선재 스님 등이 함께했다.

이날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학인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하며 '제2교구본사 용주사 교구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효 스님은 "부처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예경만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뛰어넘어야 할 모델"'이라며 "목숨을 내놓는다는 각오고 큰 원력을 세워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졸업한 스님들의 밝은 앞날을 축원했다. 스님은 "어느 한 가지는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훌륭하고 소중한 인재가 돼 승가와 자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기원했다.

졸업생 스님들은 졸업증서를 받고 논문을 부처님께 봉정한 뒤, 봉녕사 스님들과 교수스님에게 꽃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인간으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어른스님들의 은혜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원 봉녕사는 1월 10일 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3회 전문과정 · 제10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승가대학 졸업생 기념촬영 모습.

이날 봉녕사승가대학 졸업생 연지 스님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다일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봉녕사승가대 졸업생 정묵 스님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선진 스님이 본사주지 스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졸업생 스님들에게 각자 성적에 따라 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봉녕사승가대학은 이번 51회 졸업생을 포함해 총 9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제23회 전문과정 4명과 제10회 연구과정 1명 등 총 107명이 졸업했다.

김내영 기자

부석사 금동관음상, 647년 만에 부석사로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서 이운법회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 가능
친견 이후 日 대마도에 반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647년 만에 부석사로 이운된다.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대표 이상근, 이하 봉안위)가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법회를 봉행한다. 이후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부석사 100일 친견법회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78년 왜구에 의해 반출됐다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환부 전 부석사에서 친견법회 봉행 제안을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대마도 관음사가 이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이상근 부석사 불상 봉안위 대표는 "지난 11년간의 봉안 운동을 통해 단 하루만이라도 불상을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염원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695년 전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부산聯, 재가 동안거 템플스테이

1월 11~12일 통도사서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재가 동안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안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대광명사, 미타선원 홍법사 등 8개 회원 사찰 소속 불자 40여 명이 동참했다. 프로그램은 불교 문화 체험인 천연염색과 염주 만들기가 이어졌으며 사찰의 고즈넉함을 누리는 무풍한송로 걷기도 진행됐다. 특히 '마음 알아차림'을 주제로 진행된 명상 수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회장 목종 스님은 "통도사에서 경험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인연을 이어가고 소중한 인연의 힘으로 해탈열반에 이르는 좋은 인과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사천왕재 봉행…시민 안전 기원

1월 14일 범어사 천왕문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월 14일 천왕문에서 '을미년 사천왕재'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는 매년 음력 12월 15일 사천왕재를 봉행하며 도량과 부산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방화로 전소된 천왕문을 복원하고 매년 진행되는 사천왕재는 범어사의 새로운 새해맞이 행사로 자리잡았다.

사천왕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동참한 모든 인연이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염원한 서원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큰고니 먹이 나눔

1월 12일 낙동강 생태공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1월 12일 낙동강 생태공원 일원에서 '큰고니 먹이주기 생태방생 및 생태탐방'을 진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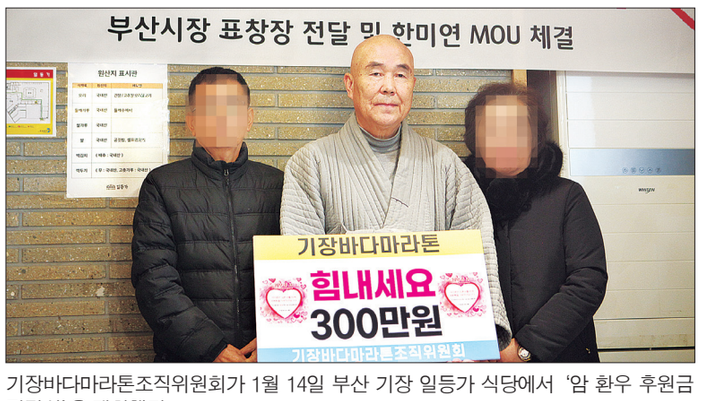
먹이주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박중록 운영위원장(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큰고니가 생태환경에 끼치는 역할' 강의를 경청했고, 고구마와 볍씨를 먹이로 전달하며 생태활동에 동참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도 낙동강 겨울 철새 큰고니를 먹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면 자연환경을 위한 큰 방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 암 환우 기부금 전달

1월 14일 기장 일등가 식당서
각 150만원 환자 2인에 전달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가 1월 14일 부산 기장 일등가 식당에서 '암 환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효운 스님)가 1월 14일 부산 기장 일등가 식당에서 '암 환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는 효운 스님이 7년 전 시민들의 건강백세를 기원하며 시작한 모임으로 매년 기장 바닷가 일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매회 참가인원이 늘어 매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해에는 이미 70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혀 부산 기장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효운 스님은 참가비 가운데 1인 300원을 모아 암 환자 치료비로 회향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 각 15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내빈 소개 및 인사말, 부산시 체육공로 표창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효운 스님, 이승우 부산시 의원, 홍소영 기장바다마라톤 준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 체육공로 표창장은 홍소영 기장바다마라톤 준비위원장이 수상했다.

효운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시대에 어울리는 여러 방편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마라톤은 이 시대 건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효운 스님은 책 '건강백세의 지혜'를 저술했으며, 현재 기장바다마라톤 조직위원장, 동남권의학원 암센터 윤리위원, 전국 ROTC 불자회 법사,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는 6년 동안 12명의 암환자에게 1800만원을 후원했으며 기장 해안로에 마라톤 파크를 조성해 참가자 이름을 동판에 각인해 널리 알리고 있다. 53사단 장병 1200명을 대회에 무료로 초청해 격려했으며 인도 보드가야와 협업해 한국-인도 간의 스포츠 교류를 시작했다. 이번 해 기장바다마라톤 대회는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의왕 청계사, 제11회 불교대학 졸업식

1월 7일 경내 설법전서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가 1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1회 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청계불교대학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 성견 스님, 청계불교대학 지도법사 명원 스님, 재무 명종 스님, 석가사 교무 명우 스님, 총신도회 임원진들과 50여 명의 졸업생이 참석했다.

성행 스님은 "졸업은 나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속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와 남을 위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봉선중행(선을 받들어 행하라)하고 자리이타(자기도 남도 이롭게 함)를 몸소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개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PPT영상으로 다시 감상하며 1년 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우수 모범학생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평소 성실한 자세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박정이(여래심) 학생이 포교원장상을, 김형숙(만법지) 학생이 불교대학장상을, 곽만순(자은) 학생이 주지특별상을, 박혜경(수경지) 학생이 총신도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